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

글_김유미 이모는 대학에서 예방의학을 가르쳐.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연구해.
그림_애송 이모



2010년 1월, 카리브해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아이티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 이 지진으로 아이티 인구의 3%에 달하는, 30만여 명의 사람이 죽었어. 정말 안타까운 참사였지. 그런데 그해 12월, 아이티 보건부는 약 3,300명의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해. 이전까지 발생한 적이 없던 질병이었는데, 2016년에는 환자가 78만 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엄청나게 유행하고 만 거야.

콜레라는 쌀뜨물 같은 설사를 심하게 하는 감염병이야. 균에 감염된 사람의 똥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먹는 물을 오염시키면, 그 물을 마신 사람들에게 콜레라가 옮는다고 해. 한국에서도 해산물을 먹고 콜레라에 걸린 예가 있었어. 상하수도 시설이 잘돼 있는 나라에서 콜레라 환자가 생기면, 보통 다른 나라에서 걸려서 왔거나 어패류를 통해 감염된 거야. 증상이 심한 경우는 백 명 중 다섯에서 열 명 정도인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

아이티는 왜 갑자기 콜레라 유행을 겪게 되었을까? 거기서 유행한 콜레라균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알 아낸 건, 게네가 먼 데서 왔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먼저 지진 구호를 위해 파병된 UN 평화유지군이 콜레라 유행의 원인으로 지적되었어. UN 반기문 총장도 이 문제에 관해 사과했지. 아이티는 안 그래도 큰 지진이 나서 어려운데 거기에 새로운 병원균까지 들어오고, 게다가 나라의 시설마저 취약하다 보니,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게 더욱 힘들었던 거야.

한 사회에 평소에 없던 질병이 갑자기 생기면, 먼

역력이 없기 때문에,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엄청난 재앙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잦아. 16세기 스페인 함대가 남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금을 빼앗아 갔을 때도 그랬어. 남아메리카의 잉카문명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스페인 함대와 함께 온 천연두라는 감염병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어. 그전까지 남아메리카 대륙에는 천연두가 없었거든.

한국도 예외가 아니야. 2015년, 중동급성호흡기질환 메르스로 한국이 떠들썩했던 거 기억나? 몇 년 뒤에는 임산부에게 위험하다는 지카바이러스가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기도 했고. 땅 · 공기 · 물 등 생태학적 변화, 인간의 활동, 활발한 국제 여행과 교역, 기술과 산업의 빠른 변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미생물의 적응 등 다양한 이유로 새로운 병이 나타나거나, 예전에 사라졌던 게 다시 나타나는 일이 많아지게 됐어.

콜레라 환자는 매년 세계적으로 130만 명에서 400만 명 정도 생겨. 그중 40%는 아프리카에서, 40% 정도는 아시아에서 발생해. 이게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잘못일까? 이모는 아니라고 생각해. 콜레라는 상하수도 설비와 같이 기본적인 위생 환경을 갖추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 하지만 아직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는 사람이 6억 명이나 돼. 지구에 감염병이 퍼지면, 지구에 사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세계를 활보하는 감염병은 나만 조심하거나, 내 집 대문만 잘 단속하거나, 한 나라의 빗장만 잠근다고 막을 수 없으니까. 모두가 세계 시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정말 필요하겠지? 🌐